

2번

제시문 (라)의 도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낙관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 정도가 높은 집단의 시험성적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의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인식의 현실성 정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낙관성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인식의 현실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 넘는 성적을 보인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인식의 현실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1)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1)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편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평가보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성,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환상은 인간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긍정적 환상을 자주 품는 학생들이 시험성적도 좋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의 실험결과는 (가-1)의 주장과 상반된다. (라)의 실험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 정도가 높은 집단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자기평가를 내릴 것이다. 반면에 인식의 현실성 정도가 낮은 집단은 자신의 능력을 주관적 편향을 가지고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수반되지 않는 과도한 낙관적 신념은 오히려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 상태에 정체되도록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때 인식의 현실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환상에 빠져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뛰어난 점만 부각하고 단점을 가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것 이며, 발전에 대한 노력도 크게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낙관적 신념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1)의 주장은 객관적 인식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